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1, March 2016, pp.84~97.*
Copyright©201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일제강점기 부여고적의 재해석과 고적관광의 성격

김종수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국 문 초 록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는 한편 고고학적 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에 대한 고적조사 및 고적의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부여지역의 경우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 사비기와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시기와의 밀접한 관련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적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및 고적관광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분과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부여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국(梁) · 한국(百濟) · 일본(倭)간의 문화적 관계와 영향을 설정하였고 사비시기의 백제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전달하여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는 문화 전달자설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부인하고 백제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 또는 단순 전파자 역할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세키노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둘째,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부여고적에 대한 탈맥락적 해석을 통하여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동화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특히 낙화암, 고란사, 청마산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셋째,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된 관광대상과 코스는 고적의 재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고적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를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 또는 본향으로 이념화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와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주제어 고적조사, 고적의 재해석, 고적관광, 부여고적보존회, 동화정책

투고일자 2015. 12. 31 ● **심사일자** 2016. 01. 15 ● **게재확정일자** 2016. 01. 25

Ⅰ. 머리말

일본 제국주의는 한일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을 정치적으로 통치함과 동시에 문화적 측면에서 민족 동화정책을 실시하여 조선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방식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러한 동화정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분해하여 이를 식민통치에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소위 식민사관적 관점으로서, 조선의 역사가 대륙의 정치적 파동에 의해 피동적으로 전개되었다는 '타율성론'과 조선의 사회경제 수준이 일본의 고대사회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진보한 일본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정체성론'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찬이었다.

다른 하나는 고대신화를 바탕으로 조선과 일본이 같은 조상으로 연결된다는 일선동조론의 관점으로서 고대 한반도와 일본(왜)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한반도 남부지역은 일본 야마도 조정의 통치 내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식민통치는 고토의 회복 또는 고대 이래로 갈라져 있던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논리이다. 이것을 물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일제가 추진한 정책이 '고적조사 사업'이었다.

고적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조선과 일본의 밀접한 문화교류 관계를 말해주는 증거를 찾거나 고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였음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이를 식민통치의 근거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일제는 고적조사 결과를 식민지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에게 널리 소개하고 공개할 목적으로 총독부박물관을 건립하였고 한편으로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여 식민통치의 구미에 맞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유적과 유물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조선인들이 자기 조상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열등감과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만들고자 하였다.

고적관광은 고적명승 중심의 관광이라는 면에서 과거 도읍지 중에서도 특히 '경주'와 '부여'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경주는 석굴암 발견과 불국사 보수 등 고적정비 그리고 화려한 신라 천년의 도읍지라는 이미지로 인해 1910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반면에 부여는 경주와 달리 짧은 기간의 왕도였고 잔존 유적이 많지 않아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백제와 일본 아스카(飛鳥) 문화와의 관계가 담론화되고 부여고적보존회가 설립되어 고적보존 활동과 함께 고적에 대한 재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비로소 백제 구도(舊都)로서의 부여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진척되었다.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적극 부합하려는 특성을 가진 부여고적보존회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경주지역의 고적관광과는 다른 특이성이 있다. 부여 고적관광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것에는 부여 8경을 비롯 평제탑, 청마산성, 능산리 고분군, 고란사, 낙화암, 백화정 등 일제의 의해 재해석되거나 재구성된 유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여 고적관광이 단순한 고적 탐방이 아닌 일제의 동화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시되었음을 말해준다.

부여고적보존회와 관광에 대해서는 최석영[1]의 선행연구가 있다. 최석영은 부여고적보존회가 1929년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조직을 확대하여 고적보존과 고적유물에 관한 조사연구, 관람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보존회의 백제진열관장인 오사카 긴타로(大阪金太郎)는 부여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부여의 관광명소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 글은 선행연구를 심화시켜 부여고적보존회의 고적에 대한 재해석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당시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실제 고적관광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석영, 2003, 「일제식민지 상황에서의 부여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관광명소화'」 『비교문화연구』 제9집 제1호, 서울대.
최석영, 2002, 「식민지 시대 '고적보존회'와 지방의 관광화–부여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18호, 한림대.

Ⅱ. 부여지역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1. 부여지역의 고적조사

부여지역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고적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일본 도쿄제국대학 조교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이다. 그는 1909년 8월 대한제국 탁지부 건축소로부터 고건축물 조사 촉탁으로 임명되어 공학사 구리야마 준이치(栗山俊一), 문학사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와 함께 공주, 은진, 논산을 거쳐 11월 부여에 도착하였다. 이때 세키노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과 눈이 많이 내려 고분군은 찾을 수 없었다[2]고 한다. 그가 부여에서 조사한 것은 대당평제탑과 유인원 기공비, 평제탑반석상(平濟塔畔石像), 고란사 석불 2구 등이었다.

그후 부여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5년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조사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와 세키노 일행이 담당하였다. 구로이타는 총독부와는 별도로 도쿄제국대학 측의 명령을 받아 1915년 5월부터 7월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의 사적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 지역을 조사한 이유는 이 지역과 일본과의 관계 특히,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3] 구로이타는 경주, 가야 방면의 조사를 마친 후 논산, 공주를 경유 7월 9일 부여에 도착하여 100여일 간 "실제를 답사하고 고고학, 역사지리학 등의 방면에서 관찰하여 이를 상대사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는 목적으로 능산리 고분군을 조사하였다. 구로이타는 6기의 전(傳) 백제왕릉 중 가장 큰 봉토를 가진 중하총과 서하총을 발굴하였는데 이미 도굴되어 부장품은 남아있지 않았다. 세키노 팀 또한 중하층 다음가는 크기의 고분인 중상총을 발굴하여 석상 위에서 목관 내지 그 덮개의 파편을 발견하고 금동보관의 장식 금구로 생각되는 크고 작은 금동팔화형금구(金銅八花形金具) 수 개를 수습하였으나 이미 도굴해 가고 남겨진 것들이었다.[4] 당시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결과는 1916년 「조선고적도보」 3집에 수록되어 간행되었다.[5] 세키노는 이 금구의 문양이 일본 아스카(飛鳥) 시대의 유물 문양과 같은 것으로 보아 아스카 시대 예술은 백제의 진사(眞寫)이며, 이 금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

세키노는 부소산성 출토 기와와 도기 파편이 "일본 法興寺址(아스카데라-飛鳥寺를 지칭)에서 출토된 그것과 문양이 같고 법흥사(法興寺)와 시텐노지(四天王寺) 창건 시 백제가 와공을 파견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법흥사지(法興寺址) 와편이 백제식인 것은 당연한 일"[7]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여에서 출토된 전와(塼瓦)와 도기 파편들은 난징에서 출토된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그것과 양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법은 양나라로부터 수입한 것이 분명하며 이로써 "백제와 중국 양나라 그리고 일본(왜) 간의 예술이 사제관계"[8]였음을 알 수 있다면서 사비시대 백제문화와 일본 아스카 시대 문화와의 친밀관계를 강조하였다. 세키노의 이러한 중국(梁), 조선(百濟), 일본(倭) 간의 문화교류 관계 도식은 이후 세키노 조선미술사의 기본 축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의 한국 고대사 인식의 기본 틀이 되었다.

부여지역에 대한 2차 조사는 1917년 5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야츠이 세이이치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조선총독부는 1916년 7월 4일 부령 제52호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고적조사위원회'를

2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pp.463~464.

3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제68호, p.257.

4 關野貞, 1941, 앞의 책, pp. 463~472.

5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p.258(도판 731) 참조.

6 關野貞, 1941, 앞의 책, p.466.

7 關野貞, 1941, 앞의 책, p.462.

8 關野貞, 1941, 앞의 책, p.54.

설치하여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고적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야츠이 팀의 부여지역 고적조사는 이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조사대상은 부소산성지, 나성지, 능산리 전 백제왕릉, 고분군(서상총, 동상총, 동하총), 동남리 5층 석탑, 여래석상, 금성산 비로자나불 석상, 부소산 유인원 기공비, 읍내초석, 석조, 홍산면 홍량리 오층석탑, 임천면 구교리 대조사석탑, 미륵석상 등이었다.[9]

1915년과 1917년 두 차례 조사를 통하여 사비시기 백제 중앙의 묘제가 고구려, 신라, 가야와는 다른 백제적인 고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출토 유물은 빈약하지만 금동관 장식의 경우 중국 남조나 일본 아스카 문화와 관련되거나 동하총의 경우처럼 고구려 벽화고분과 같은 유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백제왕릉급 고분에서 부장품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경주나 평양의 고분 발굴결과와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10]

1920년대에는 부여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하지 않고 유적의 수리 등 보존활동을 주로 하였다. 1922년 5월의 평제탑 목책 수리, 1929년 부여 객사 수리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발족 등이 그것이다. 부여 지역에 대한 3차 발굴조사는 1935년에 실시되었는데 군수리사지 발굴조사가 첫 시작이었다. 군수리사지는 부여 지역 불교사원에 관한 최초의 조사로 1935년 9월부터 1936년 10월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불교사원 조사 전문가인 동경제실박물관 감사관 이시다 모사쿠(石田茂作)가 담당하였다.[11] 이시다는 군수리사지 발굴결과에 대해 "사지의 가람배치는 일본의 아스카 시대 사원의 그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발굴된 금동불·석불상과 고와(古瓦)의 수법에서도 호류지(法隆寺)나 기타 아스카 시대 유품과 공통점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일본)의 불교 도래의 문헌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12]이라며 일본 고대 불교사의 고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했다. 군수리사지 발굴은 이후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식 가람배치의 원류로서 '군수리식'가람배치로 불리는 등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3]

이후 부여지역은 1936년 4월부터 5월까지 규암면에 있는 외리유적 발굴, 1937년 4월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중심이 된 능산리 동고분군 조사, 1938년 이시다와 사이토 다다시(齋藤忠) 등이 참여한 동남리와 가탑리사지 조사, 1942년, 1943년 정림사지와 구아리 사지 조사 등이 계속 이어졌다. 1930년대 중반부터 집중 조사된 부여 지역의 사지조사 배경에 대하여 당시 일본학계의 쟁점이었던 호류지(法隆寺) 재건 비재건 논쟁과 관련한 일본학계의 아스카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14]이 있다. 즉 이시다 등 조선고적연구회의 부여지역 사지조사는 일본의 고대사원과 백제사원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부여지역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1939년 3월 8일에는 관폐대사 부여신궁을 조영하고 신도를 경영한다는 계획이 발표[15]되었으며, 4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이 개관되었다. 부여분관 설립은 부여고적보존회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부여신궁과 신도건설을 계기로 유물의 현지보존에서 더 나아가 부여지역의 고적조사와 고적관광

9 조선총독부, 1920, 「대정6년도 고적조사계획」 『대정6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pp.1~6.

10 이병호, 2009,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의 고적조사」 『일제강점기의 사비인식』,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pp.8~9.

11 이병호, 2009, 앞의 책, p.12.

12 石田茂作, 1937,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 p.55.

13 이병호, 2009, 앞의 책, p.12.

14 이병호, 2011, 「일제강점기 백제고지에 대한 고적조사사업」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pp.141~143.

15 부여신궁 건립사업은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1945년 전반기에 신궁의 초석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손정목, 1987, 「일제하 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 건설」 『한국학보』 49호.

을 더욱 활성화하여 내선일체를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정치적'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30년대까지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 사업은 고대 사비시기 백제와 일본 아스카시대 간의 문화교류 관계 및 친연성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일제의 고적조사 사업의 목적이 조선과 일본의 혈연적·문화적 친밀성을 역사학적·고고학적으로 증명하여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을 현실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세키노, 이시다 등의 백제고적 조사나 구로이타와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신라와 가야 문화권 조사에 그토록 집착한 것은 소위 신공황후의 '삼한정벌론'이나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이 아닌 한반도에서 일본의 태고성을 재발견하고 신화 속 고토복원을 위해 고적조사를 하였던 것이다.[17]

2. 부여지역 고적의 재해석

일제의 조선 고적조사 목적이 순수한 의미의 고적과 유물의 보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적조사로 출토되거나 발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고대 일본과 조선의 혈연적, 문화적 밀접한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때, 고적과 유물을 그들의 의도와 정책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적은 역사적 시공간의 산물이다. 부여지역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사비 백제문화와 일본 아스카 문화는 밀접한 관계로 재구성되었으며 부여는 식민통치의 표상 공간으로 재맥락화되었다. 1910년 초기까지 망각의 도시였던 부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15년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정 5주년 기념'으로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에서였다. 공진회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한 것으로 경복궁을 장소로 정한 것과 출품의 선정 및 배열방식부터 일본과 조선을 비교 대조하기 위한 기법이 동원되었다. 공간의 정치학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공진회에서는 '사물들의' 세계와 '개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창출시킨 '적극적 행위자'와 같은 것으로 식민지지배 이전의 상태를 마이너스 언어로, 그 이후의 상태를 플러스의 언어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그 이미지를 내면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실제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여기게 하였다.[18]

공진회 전시는 각 건물별로 나뉘어 제1호관, 제2호관, 심세관, 철도 특설관, 미술관, 고적모형관, 등 1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에서 심세관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 13도의 '시정' 이후의 발전상을 전시하였다. 당시 충청남도 장관 고하라 니죠(小原新三)는 처음으로 디오라마를 이용하여 부여 8경의 실상을 표현하였다. 제한된 공간과 일정에서 치러지는 공진회의 성격에 비추어 부여에 대한 소개가 대중에게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기획한 고하라 니죠라는 인물은 나라현의 사무관으로 있던 시절부터 아스카, 나라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백제문화를 동경해 「백제의 사적과 부여의 명소구적」이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로 부여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인물로 알려졌다.[19]

그러나,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의 생산과 유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여고적보존회'였다.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1927년부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2만원 적립을 목표로 면장회의 등을 통해 각 면에 모금액을 할당하는 등 재정확충에 노력하는 동시에 진열관의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박물관 설치를 위한 여론

16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p.443.

17 배형일, 2006, 「신화 속 고토복원을 위한 유적 탐색」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p.253.

18 최석영, 2008, 『한국박물관 100년 역사-진단과 대안-』, 민속원, p.45.

19 최석영, 2003, 앞의 책, p.112.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20] 1928년 부여고적보존회는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위한 진정서와 취지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는데 동 취지서에서 백제를 일본과 인연이 깊은 땅, 일본의 아스카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방이라는 점을 들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가 '순치보차'(脣齒輔車)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21]

1929년 2월 20일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부여고적보존회는 설립목적으로 (1)고적보존 (2)유물의 보존 및 수집 (3)고적유물에 관한 조사연구 (4)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제반계획 및 설비 (5)그 외 고적유물의 보존에 관한 사항 및 고적유물을 사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들고 있다. 정관에 의하면,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회장에는 충청남도 지사직, 부회장은 충청남도 내무부장직, 전무이사는 부여군수직에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민관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는 고적보존 및 조사활동과 더불어 부여 고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다. 교통편의 시설과 숙박업소 확충을 계획하고 언론사의 부여고적탐승단 안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여고적보존회의 고적보존 및 관광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오사카 긴타로(大板金太郎)인데, 그는 1932년 부여에 와서 백제진열관 관장에 부임한 이래 부여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고대 백제와 일본 아스카문화와의 관계를 재맥락화하는 등 부여를 식민지 내선일체의 대표적 표상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 일조한 인물이다. 부여고적보존회가 1934년에 발간한 「扶餘を見るには!」, 「백제구도 부여고적명승안내기(百濟舊都扶餘古蹟名勝案內記)」, 「백제구도 부여고적명승사진첩(百濟舊都 扶餘古蹟名勝寫眞帖」에는 당시 부여고적보존회의 부여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적관광 홍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22]

「백제구도 부여고적명승안내기」(이하 '안내기')는 (1)백제의 흥망과 일본과의 관계 (2)부여 부근의 고적명승 내용 등으로 되어 있는데 (1)'백제의 흥망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백제 성왕이 사비에 천도한 후 일본 긴메이(欽明)천왕 때 불교경전 등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파하여 일본 아스카문화 발달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과 백제 의자왕 때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후 일어난 복국운동에 당시 일본 조정이 구원군을 보낸 사실, 복국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백제유민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였을 때 이들을 포용하여 벼슬을 주고 정착하게 하였으며 특히 왕족 후예 중에는 황비가 되어 자손을 두기도 하였다는 점, 귀화당시 백제 귀화민들의 풍속과 습관, 생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성씨를 고국에 있을 때처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고켄(孝謙)천황 시에는 귀화민들의 신청에 의해 일본 성씨를 하사하니 그 자손들이 성을 고치기를 청원하는 등 일본 조정이 백제 귀화민들을 차별 없이 대우함으로써 명실공히 그들이 자진해서 일본국민으로 동화되었다는 내용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재판된 해는 1937년으로 일제가 내선일체와 창씨개명 등을 통해 황국신민화와 동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시기였고, 2년 후인 1939년에 부여를 내선일체의 영지로 간주하여 부여신궁을 조영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부여고적보존회는 그 이전부터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고적에 대한 재맥락화를 통해 일제식민정책에 적극 부합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부여 부근의 고적명승'에서는 부여지역의 고적과 명승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통상 고적이나 유물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안내기'에 나타난 부여고적에 대한 재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득이신성의 청마산성 비정에 관한 것으로,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10년

20 매일신보 1927.12.16, 1933.6.17 기사 참조.

21 최석영, 2002, 앞의 책, p.118.

22 이들 자료는 부여고적보존회 백제관 관장인 오사카 긴타로의 언론 기고문과 이마니시 류의 백제사 관련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났을 때, 일본 긴메이 천왕은 장졸 370인을 백제에 파견하여 왕성의 전위가 될 만한 '득이신'에 성을 쌓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득이신성'이 지금의 '청마산성'이며, 따라서 청마산성(득이신성)은 당시 일본이 적극적으로 백제원호에 힘썼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잘 보호하여야[23]한다는 것이다. 고적 사진첩의 부록인 「부여고적지도」에는 청마산성이란 지명의 괄호 안에 아예 '득이신성'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

둘째, 고란사를 일본인 최초의 유학지로 해석한 것이다. 백제 위덕왕 35년(일본 崇峻천황 원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은솔 수신 등이 귀국할 때 일본인 여자 3명(島女, 豊女, 石女)을 유학생으로 데리고 와서 왕 37년에 도읍에 머물게 하고 비구니 수업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때의 수업도량이 니사(尼寺) 지금의 고란사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본 해외유학생의 선구라고 기술[24]하고 있다.

셋째,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가 백제궁녀 이외에 일본 부인들도 있었다는 설이다. 이 이야기는 「扶餘を見るには!」(1934~1943년까지 6판)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는데 내용인 즉, 당시 백제에는 일본인 혹은 일본계통의 사람들이 다수 요직에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을 데리고 와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왕성이 함락되자 일본인 부인들은 낙화암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다.[25]

이상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사비시기에 백제와 일본은 마치 한 형제처럼 매우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비백제 시기에 부여는 '일본이 축성을 도와주었고 사비성이 함락되었을 때는 백제궁녀들과 함께 일본인 부인들이 낙화암에 몸을 던져 운명을 같이 하였으며, 일본 여인들이 최초로 유학을 와서 수행했던 인연 깊은 곳'이라는 친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여고적보존회와 오사카 긴타로의 고적 재해석이 당시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41년 7월 9일부터 1942년 1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김동인의 장편 역사소설 「백마강」의 내용 중에 고란사를 일본인 여성들이 처음으로 유학을 와서 수학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인의 장편소설 「백마강」은 일제의 부여신궁 건립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내선일체의 성지 부여를 배경으로 역사소설의 신기원을 만들고자 창작되었다.[26] 「백마강」은 백제 멸망기를 배경으로 나당 연합군에 의해 의자왕이 도망가고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장이 왕족 복신과 원정군을 데리고 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백제와 왜의 활발한 교류를 묘사하기 위해 여러 명의 왜인들이 등장하고 의자왕의 난행과 고통당하는 백성들, 정치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연대담 등이 주요 서사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김동인은 집필 동기에서 "백제문화는 야마도까지 미쳐 오늘의 대일본제국을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다. 오늘날 같은 천황아래 대동아건설의 마치를 두르는 반도인 조선(祖先)의 한 갈래인 백제사람과 내지인의 조선(祖先)인 야마도 사람은 1천 3백년 전에도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같은 나라나 일반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27]

1944년 3월 31일자 매일신보에는 '성지 부여의 편모(片貌)'라는 제하의 부여명승과 고적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에서는 부여 8경으로 (1)사비루의 춘효(春曉) (2)고란사(皐蘭寺)의 만종(晩鐘) (3)낙화암의 취우(驟雨) (4)백마강의 추월(秋月) (5)백제탑의 석조(夕照) (6)수북정의 청풍(晴風) (7)구룡평의 낙안(落雁) (8)부소산의 모설

23 부여고적보존회, 1937, 『百濟舊都 扶餘古蹟名勝案內記』, p.55.

24 부여고적보존회, 1937, 앞의 책, pp.31~32.

25 부여사적현창회, 1934, 『扶餘を見るには!』, pp.7~8.

26 박진숙, 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파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 pp.86~87.

27 한수영, 2002, 「고대사 복원의 이데올로기와 친일문학 인식의 지평-김동인의 백마강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65호, p.195.

(暮雪)을 들고, 특히, 낙화암에 몸을 던진 여인들 중에는 일본(大和)부인들도 있었고 고란사에는 일본 여자 3명이 최초로 유학을 와서 머물렀던 곳이라는 오사카 긴타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군수리'를 백제 성왕시대 일본군이 주둔했던 주둔지로 해석하는 등 부여고적보존회 발간 「부여고적명승지도」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 소개에서도 고대 백제와 일본(왜), 중국 남조와의 문화교류 관계 강조는 세키노의 부여고적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역사나 고적은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부여'라는 공간에 위치해 있는 고적에 대해 오사카 긴타로는 새로운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당시 내선일체를 기본방침으로 삼은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고대사에 비추어 치환·설명함으로써 현실적인 지배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였다.[28]

Ⅲ. 부여지역 고적관광의 성격

1910년대 관광이 일본의 선진문물과 산업을 견학하는 것과 일제가 이 땅에 이룩해 놓은 신문명의 자취를 시찰하는 것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명승고적지를 탐승하는 것이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부응하여 부여지역에서도 고적조사와 보존활동을 바탕으로 부여를 관광명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29년에 재단법인으로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주요 관광지로는 금강산, 묘향산 등 산천 명승지와 평양, 개성, 경성, 경주, 부여 등의 고도를 들 수 있는데, 경주 등 고도지역 고적관광은 일본 고대의 아스카 및 나라시대 흔적을 한반도에서 찾고자 집중적으로 조사한 신라, 백제, 가야지역의 고적조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경주지역의 경우 1911년의 석굴암의 발견과 불국사의 개수(1918~1925년), 경주고적보존회의 활동, 총독부철도국의 경주관광 안내,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으로 1920년대는 각광받는 여행지로 부상했다. 경주가 일본인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가 된 배경에는 일본 지식인들의 경주고적 기행과 예찬이 한 몫을 하였는데 소설가 오마치 케게츠(大町桂月)와 기노시타 모쿠타로,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등이다. 오마치는 1919년 경주를 여행하고 고대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유물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신공황후의 신라정벌과 임진왜란 때의 가토 기요마사의 행로, 연오랑과 세오녀 전설 등을 회고한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1916년 석불사를 여행하고 석굴암 예찬론을 펼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 지식인들의 경주 고적에 대한 예찬은 고대 일본의 조선지배라는 역사적 관계를 회고하거나 조선고적보존에 대한 일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29]

경주가 일찍부터 고적관광으로 일본인들에게 각광받았던 것에 비해 부여는 1939년 부여신궁 조영계획이 발표되기까지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인들로부터 큰 이목을 끌지 못한 것 같다. 1939년 6월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에서 발간한 『관광조선』 1940년 11월 특집호에서는 '내선일체의 성지 부여'를 설명하면서 "고대 일본과 백제의 관계는 단순한 우방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육체적으로 엮인 일체적 관계였다"고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백마강, 낙화암, 백화정, 부소산, 석탑 등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30] 부여신궁 조영을 계기로 부여는 '일본인 선조가 밟은 땅, 선조들이 지킨 나라, 선조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으로 표상되고 있었다.

1920~30년대에는 언론사 주최로 명승고적지를 탐방하는 단체관광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부여의 경우에는 경주나 평양보다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매일신보사나 동아

28 최석영, 2003, 앞의 책, p.130.

29 윤소영, 2010, 「식민통치 표상 공간 경주와 투어리즘」 『여행의 발견, 타자의 표상』, 민속원, pp.259~265.

30 서기재, 2011, 『조선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p.328.

일보사 등의 언론사에서 탐승단을 모집하는 고적관광이 이루어졌다. 1925년 동아일보사 5개 지국(전주, 김제, 이리, 군산, 강경)주관으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백제고도 부여탐승단'관광은 부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단체관광이었다. 이때의 주요 관광일정은 논산에 도착, 3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9월 5일에 관촉사 은진미륵불을 관람하고 부여에 도착한 후 부여고적보존회의 안내로 백마강, 낙화암, 조룡대, 고란사 관람과 6일에는 보존회 백제진열관을 관람하고 유인원 기공비, 백제창고유적, 사비루, 대재각, 수북정, 자온대, 부소산성, 천정대 등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문기사는 부여군수와 지방 유지들이 탐승단원들에게 다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예상 이상의 굉장한 인기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31]

이후에도 동아일보사는 1928년 7월 대전지국, 1931년 9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함열지국 공동 주최, 1938년 4월 노성지국, 5월 대치분국, 10월 청주지국, 1939년 4월 청안지국, 1940년 4월 노성지국 등이 주관하여 부여탐승단을 조직, 부여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이들 부여관광단 인원은 보통 20~30명 정도였고 교통은 철도를 이용하여 현지에 도착한 후 자동차로 고적을 탐방하였으며 관람 대상지는 주로 부여 8경이었다. 동아일보사 외에 매일신보사도 1927년 10월 강경지국, 1932년 7월 전주역장, 1938년 6월 본사주관 등으로 각각 부여 단체관광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1938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매일신보 본사에서 주관하고 일본여행협회 조선지사에서 후원한 부여탐승단은 60명 규모의 대규모 단체관광이었다. 논산 은진미륵과 부여8경을 탐방하는 관광일정이었는데 부여면장, 부여경찰서장대리, 지역유지들의 환대를 받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32]

단체관광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는 관광객을 모집하고 일정, 숙박, 교통 등 관광에 필요한 것들 즉,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자이고, 둘째는 조직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보고 즐기는 사람 즉, 관광객이며, 셋째는 관광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객체로서의 대상물이다. 여기서의 관광은 특정 프로그램을 기획한 주최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관광을 의미한다. 주최자 측면에서 조선인의 일본시찰단이나 관광단이 조선총독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후원에 의해 실시된 반면에 국내 고적관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언론사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성격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친일 성격의 부여고적보존회가 후원과 안내를 맡았으며, 부여군수를 비롯한 행정 관료들이 관광단을 영접하는 등 적극 호응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순수 단체관광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주요관광 대상인 부여의 고적은 '부여 8경'으로서 부여 8경은 조선시대 인조때 순찰사 김홍욱이 '부여회고 8경'이라 하여 고적을 중심으로 처음 선정하였는데, 그 때는 천정대, 조룡대, 낙화암, 자온대, 반월성, 고란사, 대왕포, 삼충사였으며, 대왕포와 삼충사 대신에 평제탑과 파진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풍정, 대왕포, 부산(浮山), 송월대, 영월대, 의열사, 석탄야라고 하기도 하였다. 1934년 당시의 부여 8경은 평제탑, 부소산, 고란사, 낙화암, 백마강, 수북정, 규암진, 구룡평이었다. 당시 지방 문인들은 이를 중국식으로 풀어 부소산 모우(扶蘇山暮雨), 평제탑 석조(平濟塔夕照), 낙화암 숙작(洛花岩宿鵲), 고란사 효경(皐蘭寺曉磬), 백마강 침월(白馬江沈月), 수북정 청풍(水北亭晴風), 규암진 귀범(窺岩津歸帆), 구룡평 낙안(九龍坪落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33]

최남선은 1938년 9월 7일과 9월 8일에 매일신보에 실린 '삼도고적순례 부여편' 컬럼에서 부여8경을 고래의 것에 따른다고 하면서 (1)제탑낙조(濟塔落照) (2)부소효일(扶蘇

31 동아일보, 1925.8.22, 9.4, 9.8, 9.9 기사 참조.

32 매일신보, 1927.10.20, 10.21, 1932.7.17, 9.13, 1938.5.28, 5.29, 5.31, 6.1, 6.6, 6.7. 기사 참조.

33 부여사적현창회, 1934, 앞의책, pp.14~15.

曉日) (3)난사효종(蘭寺曉鍾) (4)마강춘조(馬江春潮) (5) 왕포귀범(王浦歸帆) (6)만광추연(萬光秋蓮) (7)장제양류(長堤楊柳) (8)도붕송회(到崩松檜) 등을 들고 있다.[34]

부여고적보존회와 오사카 긴타로는 부여 8경이 사실(史實)과 풍광을 함께 음미할 수 있게 지어져 부여를 대관하기에 흡족하기는 하나 강류를 중심으로 편중된 여성적 경치이고 산악에 웅거한 남성적 경치가 없음이 아쉽다고 평하고 있다.[35] 동 '안내기'에 나오는 부여 8경을 세분해 보면 부소산에는 영월대, 송월대, 산성지, 유인원기공비, 매림, 군창지, 사비루, 백화정, 낙화암, 고란사 등이 위치해 있는데 이중 낙화암과 고란사는 따로 구분하여 8경에 추가했다. 유인원 기공비는 1909년에 발견되어 1916년 보수 재건되었고 매림(梅林)은 백제가 「논어」를 일본에 전한 것을 기념하여 일본인 시부사와 케이조오(澁澤敬三)가 자신의 집 정원에 있던 매화 수종을 부여에 기증하여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이를 식재한 것이며, 낙화암 위의 백화정은 1929년에 부여군에서 새로 지은 것이고, 대왕포는 「삼국사기」 등에 무왕이 신료들을 데리고 사비하 북쪽 포구에 나가니 기암괴석과 기화가 그림 같아 왕이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연회를 베풀고 즐겨 '대왕포'라고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사카 긴타로는 현재 도성 동남쪽 왕포리(旺浦里) 방면을 대왕포로 잘못 이해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36]

한편, 수북정은 조선 광해군 때 김흥국이 창건하였고 평제탑은 부여에 남아있는 유일한 백제시대 건조물로서 1942년경 발굴할 때 정림사라는 사명이 새긴 와편이 출토되어 창건 당시에는 정림사탑으로 호칭되었을 것이며, 청마산성은 성왕 26년에 일본의 긴메이 천황이 장졸 370인을 파견하여 축성을 도운 득이신성으로 일본이 백제를 원호한 증거로서 귀중한 유적이라고 평가하며, 의열사비는 조선 선조 때 부여현감 홍가신이 백제 말기 충신 성충, 흥수, 계백과 고려의 이존오를 합사한 사당으로 의열사를 창건하였는데 그후 사우는 파괴되고 비석만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37]

당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장려한 관광코스를 보면, 부여고적보존회 진열관 - 부소산(도보 또는 자동차) - 고란사(유람선) - 구교리 혹은 규암진을 거쳐 다시 부여로 돌아와 남령공원 - 평제탑 - 조왕사 - 백제왕릉 - 청마산성 - 삼충사비를 관람하는 코스였다.[38] 부여고적보존회에서 발간한 「백제의 구도(舊都) 부여고적명승 안내」(1932년)라는 관광안내서는 표지에 평제탑(정림사지 5층석탑)이 채색화로 그려져 있고 펼쳤을 때 한쪽 면에는 부여 그림지도가, 다른 쪽면에는 부여고적 명승 해설이 적혀있다. 이 안내도에는 주요 고적으로 평제탑, 보존회진열관, 유인원비, 백제군창 적(跡), 부소산성지, 고란사, 조룡대, 낙화암, 대재각, 수북정, 자온대, 규암진, 구룡평, 천정대, 의열사, 능산리 왕릉, 일본군 주둔전설지, 가림성지, 대조사 미륵불, 무량사 등이 표시되어 있다.[39] 1934년 발행된 부여고적엽서와 그림에서도 고란사와 평제탑, 낙화암이 그려져 있다. 부여 8경을 비롯해 당시 관광의 대상이 된 부여의 고적들은 오사카 긴타로 등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맥락화된 고적들(고란사, 낙화암, 평제탑, 조룡대, 능산리 백제왕릉, 청마산성, 백화정, 유인원 기공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1920년대 학생들의 대표적 수학여행지는 경성, 평양, 개성, 경주, 수원, 부여, 강화 등 전통도시와 인천, 진남포, 신의주, 원산 등 일제가 건설한 신흥도시로 대별된다. 그런데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수학여행 통계를 보면, 전체 273건의 수학여행 중 경성, 평양, 인천 등 근대문

34 매일신보, 1938.9.7, 9.8 기사 참조.

35 부여사적현창회, 1934, 앞의책, p.15.

36 부여고적보존회, 1937, 앞의 책, p.41.

37 부여고적보존회, 1937, 앞의 책, pp.55~57.

38 최석영, 2003, 앞의 책, pp.122~123.

39 부산근대역사관, 2007, 「부여고적명승안내」『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pp.116~117.

물을 견학한 것이 188건으로 69%, 경주, 부여, 강화도 등 전통문화유적 견학을 위한 수학여행이 85건으로 31%가 된다. 그 가운데 경주지역이 9건이고 부여가 11건이었다.[40]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적 동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수학여행을 장려하였고, 경주와 부여는 고적조사 결과 정비된 고적을 통해 과거 조선과 일본 간의 친밀했던 관계를 역사적 증거로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교육 장소로서 안성맞춤의 수학여행지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고적조사 및 고적보존 활동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추진되었다. 부여 고적관광의 배경과 배후에는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있었으며, 백제진열관 관장으로 있던 오사카 긴타로는 세키노 등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사비 백제와 일본 아스카 시대를 정치적, 문화적 밀접한 관계로 연결시키고 부여의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재맥락화를 통해 부여 고적관광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Ⅳ. 맺음말

일제가 조선에 적용한 동화정책은 조선인의 일본인화였고 그것은 식민지배에서 나타나는 차별화를 내포한 개념이었다. 즉 일제의 동화정책은 조선의 열등화와 함께 차별화를 토대로 일본으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었다.[41] 동화의 근거에는 '일선동조론' 또는 '일선동원론(日鮮同源論)'이 있었으며,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무기로 조선과 일본의 고대사를 이용하였다. 과거의 역사적 동질성 내지 친연성을 객관화하여 현실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는 동화 이데올로기는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한층 더 심화되고 강화된 '내선일체'로 나타났다.

'내선일체'는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인화(황국신민화)를 의미하였지만 그것은 동등한 성격의 일본인화가 아닌 내지와 외지의 이중적 잣대의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 동화정책이었다. 어느 특정 공간을 역사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맥락화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상징 코드로 삼는 것은 식민지주의의 일반적인 통치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초반까지 망각의 소읍에 불과했던 부여가 식민지 시기 고적조사와 고적관광을 통해 '백제의 고도'로 새롭게 재발견되고 나아가 식민당국에 의해 신도(神都)로까지 격상되어 가는 과정은 일제강점기 동화정책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와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 하에서 추진되었다. 부여 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관광은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나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우리 민족유산으로서 고적을 조사하고 보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본 고대사와의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해 고적조사를 실시하였고 본래 그대로의 고적이 아닌 일본과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된 고적을 관광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관광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보여진'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 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40 조성운, 2012, 「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2집, pp.359~361.

41 최석영, 2012,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생산』, 민속원, pp.53~54.

참고문헌

- 부여고적보존회, 1937, 「百濟舊都 扶餘古蹟名勝案內記」
- 부여사적현창회, 1943, 「扶餘を見るには!」
- 부산근대역사관, 2007, 「부여고적명승안내」 『근대 관광을 시작하다』
- 박진숙, 2006, 「식민지 근대의 심상지리와 '문장'파 기행문학의 조선표상」 『민족문학사연구』 31
- 배형일, 2006, 「신화 속 고토복원을 위한 유적 탐색」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 서기재, 2011, 『조선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 손정목, 1987, 「일제하 부여신궁 조영과 소위 부여신도 건설」 『한국학보』 49호
- 윤소영, 2010, 「식민통치 표상 공간 경주와 투어리즘」 『여행의 발견, 타자의 표상』, 민속원
- 이병호, 2011, 「일제강점기 백제고지에 대한 고적조사사업」 『한국고대사연구』 61, 한국고대사학회
- 이병호, 2009,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의 고적조사」 『일제강점기의 사비인식』,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 정상우, 2008,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제68호
- 조성운, 2012, 「1920년대 수학여행의 실태와 사회적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2집
- 조성운, 2011,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 조선총독부, 1920, 「대정6년도 고적조사계획」 『대정6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 조선총독부, 1916, 『조선고적도보』 3
- 최석영, 2012,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생산』, 민속원
- 최석영, 2008, 『한국박물관 100년 역사—진단과 대안—』, 민속원
- 최석영, 2003, 「일제식민지 상황에서의 부여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관광명소화'」 『비교문화연구』 제9집 제1호, 서울대학교
- 최석영, 2002, 「식민지 시대 '고적보존회'와 지방의 관광화—부여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18호, 한림대학교
- 한수영, 2002, 「고대사 복원의 이데올로기와 친일문학 인식의 지평—김동인의 백마강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65호
- 동아일보
- 매일신보
-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石田茂作, 1937, 「扶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 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1, March 2016, pp.84~97.*
Copyright©201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einterpretation and Tourism on Historic Sites of Buyeo Region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Kim, Jong soo
Intangible Heritage Promotion Divisio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bstract

One of the assimilation policies of Japanese imperialism for the permanent domination in the colonial Joseon is the theory of integration of Japan and Joseon. The theory of integration of Japan and Joseon is a logic that Joseon (Korea) and Japan (Wae) were connected to the same ancestor on the basis of ancient myths. Also it is the assimilation ideology to justify the Colonial rule of those days through the objectification of historical identity or affinity of political and cultural relations of ancient Korean peninsula and Japan (Wae).

Japan reorganized our history to meet the colonial point of view, as part of the assimilation policies based on the theory of integration of Japan and Joseon. On the other hand Japan attempted to objectify them through archaeological research an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remains. The survey, reinterpretation and tourist of the historic sites in historic cities such as Gyeongju and Buyeo were promoted in this context.

In particular, the Buyeo, a capital of Baekje, was emphasized upon the close relevance and affinity between Sabi, Baekje and ancient Asuka (飛鳥) in Japan through research and reinterpretation on the Historic Sites. Based on them, Historic Sites Tourism was conducted by reconstructed historic sites toward the colonial Korean. In addit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Japan tried to realize the politics of space by upgrading and idealizing Buyeo as homeland or Shinto (神都) related to Japanese ancient mythology of the Asuka culture.

This paper investigated in what context research, reinterpret and tourist of the historic sites progressed on Buyeo area and how it had soaked through the general public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First, it is on historic sites. Historic sites research on Buyeo area made an attempt by Sekino Tadashi in 1909 for the first time and the re-excavation of the old burial mounds and temple si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kino set up a cultural relationship and influences between the ancient China (梁), Korea (百濟) and Japan (倭). Also, he emphasized that Sabi, Baekje largely received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and Baekje and Japan Asuka culture had closely relations and affinity. These views had been consist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cond, it is the reinterpretation on Historic sites. Buyeo Historic Sites Preservation Society (Buyeo Gojeok Bojonhoe) was established in 1915 and Osaka Kintaro, curator of Baekje exhibition hall re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cient Japan and Baekje as perspective of the assimilation ideology through the post

contextual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y emphasized on the close relevance between Baekje's Historic sites and Japan,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Nakhwaam, Goransa and Cheongmasanseong.

Third, it is the tourist on Historic sites. Buyeo Historic Sites Preservation Society played a leading role in Tourist on Historic sites at the Buyeo region. The main tourist destinations and course were restructured through a reinterpretation on the historic sites. Japan would like to show Buyeo as ideology area, homeland of ancient Japanese culture, toward the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era.

Thus, research, reinterpretation, and tourism on Historic sites were promoted while they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 promoting body was Joseon Chongdokbu and pro-Japanese interest group. It's point was 'made' and 'shown' by the eyes of others and a rediscovery of Buyeo as representational space of colony.

Keyword Research on Historic Sites, Reinterpretation on Historic Sites, Tourism on Historic Sites, Buyeo Historic Sites Preservation Society, Assimilation Policy

Received 2015. 12. 31 ● **Revised** 2016. 01. 15 ● **Accepted** 2016. 01. 25